국군 50년사

화보집

국 방 부

발 간 사

「국민의 정부」 출범 원년인 올해는 건국 50주년이자, 건군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해방 직후 창설된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1948년 정부수립 직후 탄생한 우리 국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민족과 더불어 영광과 시련을 함께 해 왔습니다.

창군 초기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38도선 경계와 공비토벌 등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국가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전쟁 시에는 육탄으로 적 전차에 맞서 싸우는 등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휴전 후에도 우리 국군은 휴전선 경계와 적의 각종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오면서 군입대 장병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조국 근대화 및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늘날에는 전차, 비행기, 함정 등 현대식 국산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월남전과 걸프전 참전을 거쳐 UN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세계 평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민과 군이 하나 되어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킨 건군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국군의 막강한 위용과 참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준 것은 커다란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50년간의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21세기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작지만 강한 정예 군대」 육성을 위해 제2의 창군정신으로 국방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창군 이후 오늘날까지 국군의 발전과정과 활동상을 담은 「국군 50년사 화보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으며, 본 화보집이 군을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태세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8년 12월

국 방 부 장 관 천 용 택

국군 50년사 화보집 (목차)

건군기(1945. 8~1950. 6) 7
한국전쟁기(1950. 6~1953. 7) 29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1953. 7~1961. 5) 75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103
국군의 월남파병(1964~1973) 127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159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189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217
세계 평화 참여 활동 269
북한 도발사 281
군 복제 및 계급장 301
건군 50년 연표 311

건군기

(1945.8~1950.6)

국방 경비대원 행진

군의 태동과 국방사령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온 군사경력자들은 국방의 책무를 통감하고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건군의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조직한 군사단체는 학병동맹을 비롯한 조선국군준비대, 건군준비위원회, 광복군국내지대 등 30여 개에 달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초기부터 미군의 병력과 경찰력의 설치만으로는 남한의 치안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 질서유지는 물론 38도선 경계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군 출신의 군 경험자의 조력을 받아 국방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 업무를 전담할 기구로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발족하였다.

2만 5천명 규모의 경찰예비대 성격을 띤 소위 「뱀부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을 토대로 창군 준비에 착수한 국방사령부는 부대 창설에 앞서 언어의 소통과 간부 양성화 교육을 위하여 이 해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개교했다. 그리고 모병 업무를 수행할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15일 조선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으나 한국측에서는 장차 독립된 국가의 국군으로 국방의 사명을 다한다는 긍지를 갖고 명칭을 남조선국방경비대라 호칭하였다.

국방경비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태릉 : 현 육군사관학교)에서 창설되어 대원의 입대식을 가졌으며, 제1연대의 창설을 효시로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부 군무국 참모 기능을 흡수하여 모병 및 인사 업무를 전담하였다.

동년 5월 2일에는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를 서울 남산동으로 이전하여 각도별로 모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동년 4월까지 7개 연대를 각도에 창설하였다.

동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를 폐교하고 5월 1일에는 연대 증설에 수반하여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경기도 태릉에 설치하고 제1기 사관후보생 88명을 선발, 입교시켜 장교양성에 착수하였다.

또한 1946년 11월, 제9연대의 증설을 비롯하여 1948년 5월에 이르기까지 계속 6개 연대를 증설하여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하였던 경비대는 정부수립 전까지 도합 15개의 연대로 편성을 완료하게 되었다.

연대수의 증가로 여단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47년 12월,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제1, 제2, 제3여단을 창설하고 1948년 4월까지 제4, 제5여단 창설을 완료하였다.

군사교육기관으로 경비사관학교 이외에도 통신, 군기, 보병, 위생, 자동차 및 1, 2, 3훈련학교를 설치하였고 유학생을 미국에 파견하여 중견간부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해군은 손원일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을 창설하였으며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8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해방병단을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6년 10월 1일 총사령부를 진해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한편, 진해에는 특설기지를

설치하였다.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7일 해군병학교를 창설하여 장교 교육을 시작하였고 동년 2월 15일 하사관 및 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함정의 수리 및 건조업무를 위하여 1946년 2월 1일 조함창을 창설하였다.

한편, 동년 10월 15일 미군으로부터 LCI 2척을 인수한 후 상륙정, 유조정, 소해정을 계속 인수하여 함정 세력을 확보하였고 1947년 8월 30일에는 38도선 이남의 해안경비 임무를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하였다. 그리고 1946년 4월 15일 인천기지 창설을 시발로 우리 나라 주요 항구인 목포, 묵호, 부산, 군산, 포항, 진해에 해군기지를 창설하여 해안경비태세를 갖추었으며, 제주도 해상봉쇄작전 및 여·순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다대한 전과를 올리며 실전경험을 체득하였다.

국군의 창설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 군정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음에 따라 동년 9월 1일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역사적인 새 발족을 보게 되었다.

더욱이 동년 11월 30일에는 법률 제9호로 국군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부 장·차관 밑에 본부기구인 각국과 참모총장, 참모차장을 두어 육군과 해군을 관장하도록 하고, 각군본부에 총참모장을 두어 각 부대 및 학교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수립에 따라 국군의 조직, 편성, 교육·훈련 등이 제도화되면서 1949년 3월 이후에는 국군의 증강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각처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의 토벌과 군부 내에 침투한 좌익계열분자 일소와 군사교육에 치중하는 데 국방시책의 기본방침을 두었다.

국군부대 확충에 역점을 둔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시정방침에 따라 1948년 10월부터 6개 연대(제16, 17, 18, 19, 20, 기갑)를 증·개편하고, 1949년 1월 제7여단을 창설함으로써 육군은 10만명으로 증강되었다. 또한 대북한 정보수집 및 유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에 제4국(정보국)을 설치하였다.

국군의 증편과 강화는 계속 추진되어 1949년 5월에는 국군조직법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 6개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편성은 3개 보병연대로 구성하여 사단의 정원을 1만 561명으로 하였다.

또한 이 해 6월 20일에는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국군의 규모는 당초에 목표한 8개 사단 23개 연대로 확충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육군으로부터 육군항공사령부를 독립시켜 공군으로 발족시킴으로써 국군은 명실상부한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공군은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비행부대를 비행단으로, 항공기지부대를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고 여자항공교육대를 여자항공대로 개편하는 한편, 항공병원과 보급창을 신설하였다.

한편, 공군 창설에 앞서 4월 15일에 해군은 여·순반란사건의 교훈에 따라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를 창설하였다.

해병대는 해군 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고 필요시 일반 지상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수륙(水陸)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보병대대 단위로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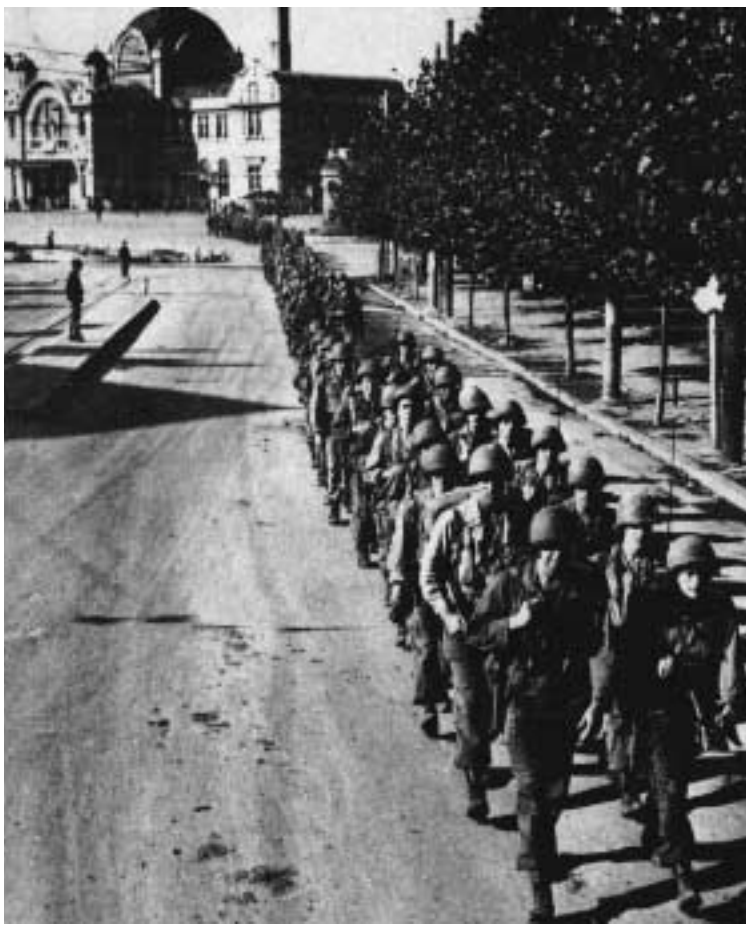
남산에 게양된 태극기

일제 통치기간 동안 일장기가 걸려 있던 남산 국기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1945. 8. 25)

연합군의 진주

38도선 월경 금지

소련군이 38도선 이북의 도로를 봉쇄해 국토는 국경 아닌 국경으로 동강나고 말았다. 소련군의 도로 봉쇄에 미군은 검문소를 세워 대응하면서 미·소의 대립은 38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부각됐다.



미 제7사단 32보병연대의 서울 진주(1945. 9. 7)

북에 진주한 소련군(1945. 8. 20)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한에 진주하면서 국토분단의 서막이 올랐다. 소련군이 원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설군사단체들의 활동

군사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은 해방과 더불어 각처에서 사설군사단체를 조직하여 1945년 11월에는 그 수가 30여 개에 달하였다.

건군의 꿈을 안고

일본군의 학병 출신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학도대가 결성됐으나 곧 학병동맹(좌익)과 학병단(우익)으로 갈려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국군준비대 결성

해방을 맞아 귀환한 장병들을 중심으로 국군준비대가 결성되었고, 1945년 12월 26일에는 중앙학교 강당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21일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령을 내렸다.

육군 창설

미군정청 별관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국방사령부는 통위부로 개칭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국방부로 바뀌었다.

군사영어학교

1945년 12월 5일 경비대 창설에 앞서 미군정 당국은 기간요원 확보책으로 서울 서대문에 군사영어학교를 창설, 1946년 4월 30일까지 110명의 기간장교를 배출하였다.

남조선국방경비대원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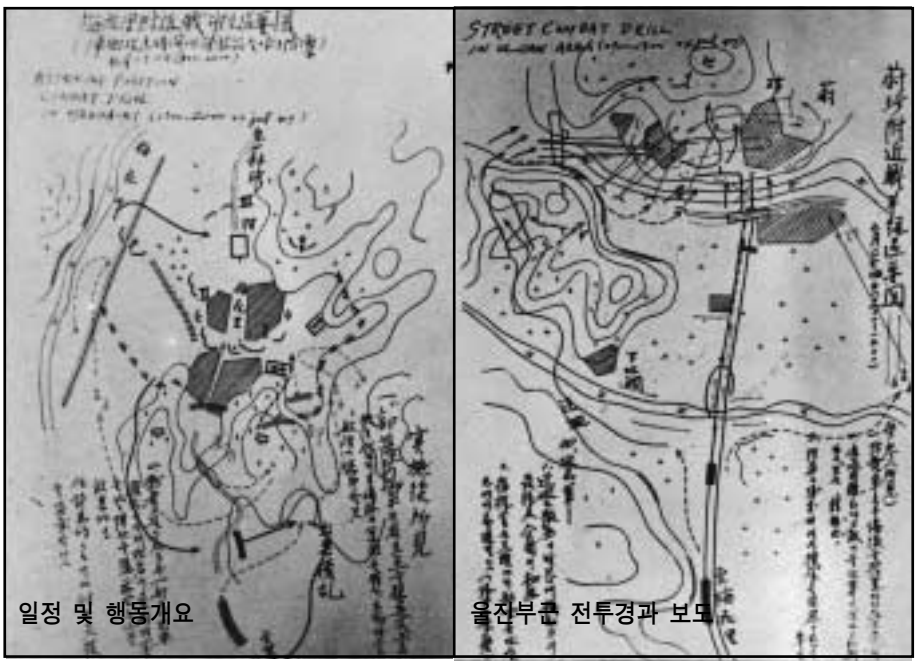
1946년 1월 15일 우리 군의 모체인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서울 태릉에서 창설하고 동년 2월 1일 동 경비대 총사령부를 서울 남산동에 설치하였다.

조선경비사관학교의 창립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되고 5월 1일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설립, 태릉에서 개교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9월 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미군정 통위부 간부들

이들은 국군이 발족하면서 국군의 간성이 되었다.(1946.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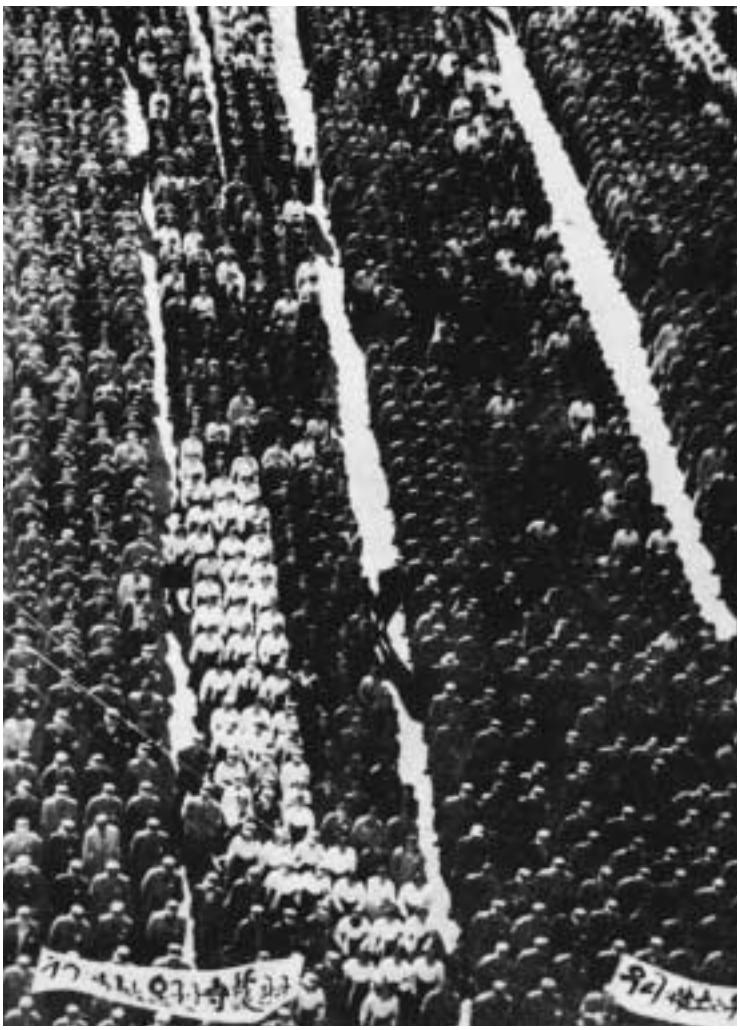


유일한 한국전쟁 전 기동연습 자료

1947년 7월 22~24일까지 3일간 제8연대 제3대대가 강릉—후포(경북 울진)간 약 150Km에 걸쳐 실시한 최초의 기동연습 경과도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

권위를 갖춘 국방경비대 장교의 행차 모습



호국군 창설(1948. 11. 20)

건군과 동시 예비병력 확보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6일 정규군에 통합되었다.

건군 당시 참모들

정부수립과 더불어 국방경비대는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정규 국군으로 전환되었다. 동년 11월 30일에는 국군조직법을 제정, 종전의 통위부는 국방부로, 국방경비대사령부는 육군본부로 개칭되었다.

교육 훈련

총검술 훈련

포병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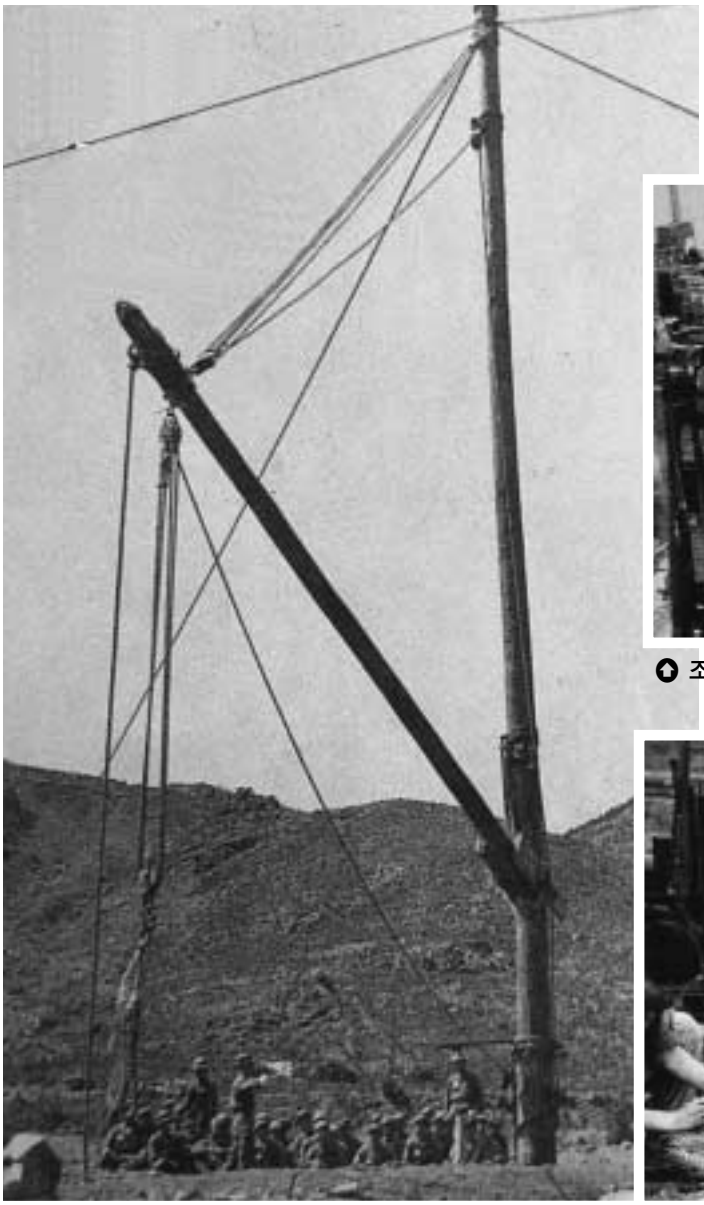
수송교육

통신교육

군대예절교육

기관총 조작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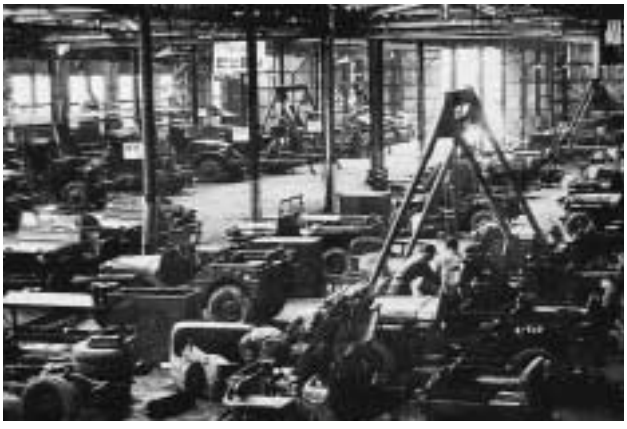
병참 활동



공병

조병창

병기 수입



수송

피복창

해군 창설

해방병단

조국광복 직후 손원일을 중심으로 해사대와 해사보국단이 통합, 해사협회로 개칭한 후 대한민국 해군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을 결성하였으며,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생도들의 전투교련(1947. 12. 1)

해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946년 1월 17일 해군병학교를 창설하여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제1, 제2, 제3기생을 임관, 배출하였다. 교명은 네 차례의 개칭을 거쳐 1949년 1월 15일 해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해상경비를 개시한 1호정

해방병단 함정인 1호정과 9호정은 밀수선 검색 및 침몰선박 구조 등의 임무를 띠고 1946년 6월 7일 진해 근해를 중심으로 해상경비를 개시하였다.

해안경비대의 행진

1946년 6월 15일 해방병단을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사진은 광복 1주년 기념 촉전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1946. 8. 15)

충무공정 명명식 장면(1947. 2. 7)

1946년 2월 1일 함정 정비를 위하여 창설된 조함창은 1946년 2월 27일 23명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래 1946년 6월 15일 T-3호정을 최초로 수리완료하고 일본 해군이 경비정으로 기공하였다가 일제 패망으로 중단된 것을 조함창 기술진이 준공시켜 감격적인 충무공정(PG-313)의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해군 퍼레이드(1948. 8. 15)

중앙청에서 거행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에서 우리 해안경비대 장병들은 최초로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페넌트를 정모에 두르고 참가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존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해군이 드디어 정식 발족하였다.

해병대 창설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군 장병 380명의 병력으로 해병대를 창설하였다.(1949.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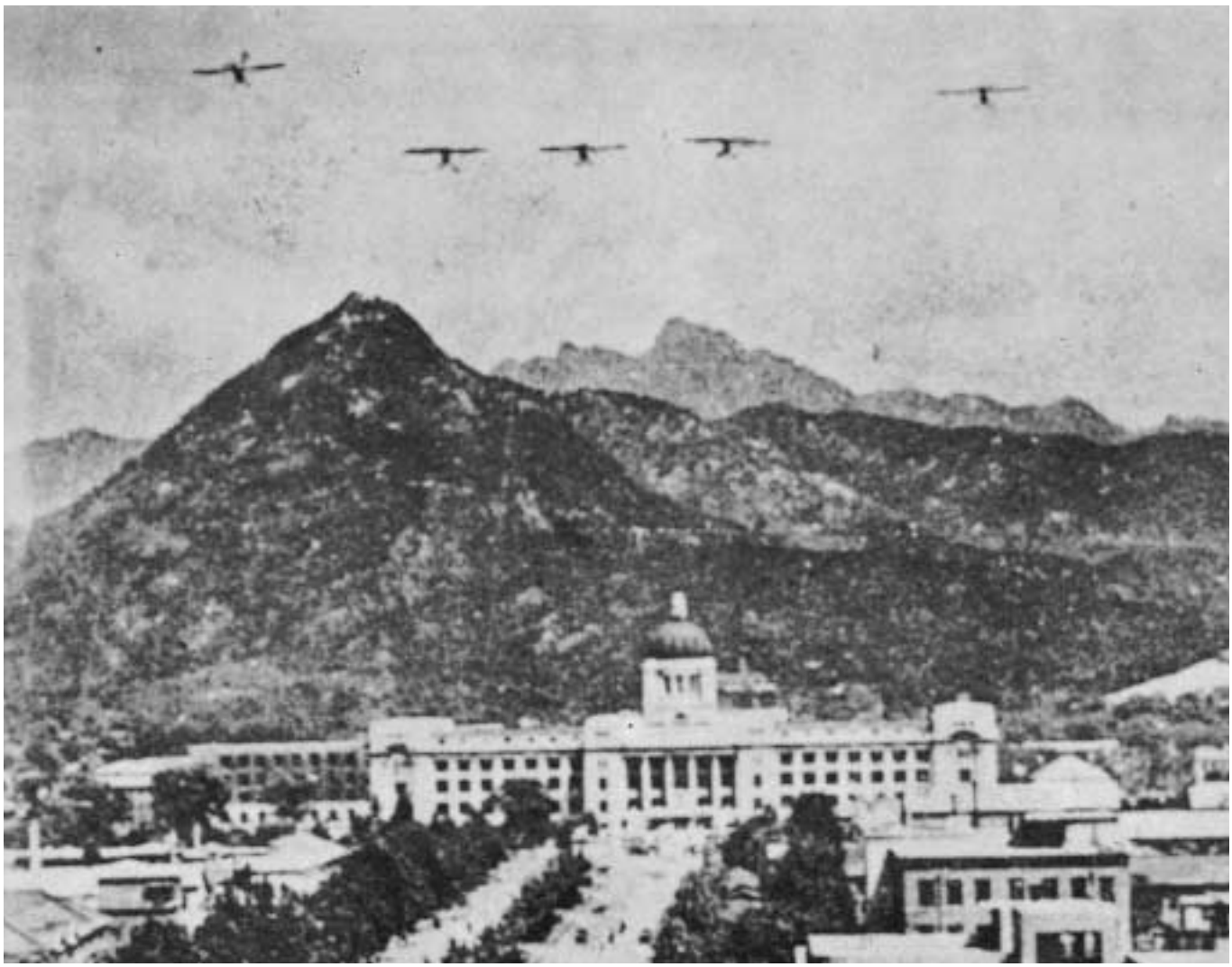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호(PC-701)는 우리 해군이 최초로 구입한 전투함으로서 한국전쟁 기간중 한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크게 활약하였다.(1949. 10. 17)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L-4 연락기 훈련(1946. 9. 13. 여의도기지)

1948년 5월 15일 경기 수색에서 통위부 직할로 항공부대가 창설되었으며 동년 7월 27일 명칭을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고 김포 송정리로 이동하였다.

L-4 연락기에 의한 서울상공 비행(1948. 9. 15)



L-4 연락기 시동 장면

1948년 9월 13일 10대를 도입한 공군 최초의 항공기로, 조종석이 전후방으로 된 2인승 연락용 경항공기다. 초창기 공군이 조종사 양성 및 제주도 공비토벌작전, 여수·순천반란 진압작전에 투입했으며 한국전쟁 초기에는 후방석 관측사가 폭탄을 안고 출격, 투척하는 등 대한민국 공군사에 길이 빛날 신화를 창조하였다.

L-5 연락기

1948년 10월 14일 10대를 도입한 전후방 조종석의 2인승 연락기로서 L-4에 이어 L-5 10대를 보유하게 된 초창기 우리 공군은 20대의 연락기로 비행 및 정찰활동을 수행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의 남침 저지 및 지상군 지원작전에 참여하였다.

공군 독립을 보도한 주요 일간지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마침내 공군이 독립되었다.
(1949. 10. 1)

생도들 하복착용 후 복장검사(1950.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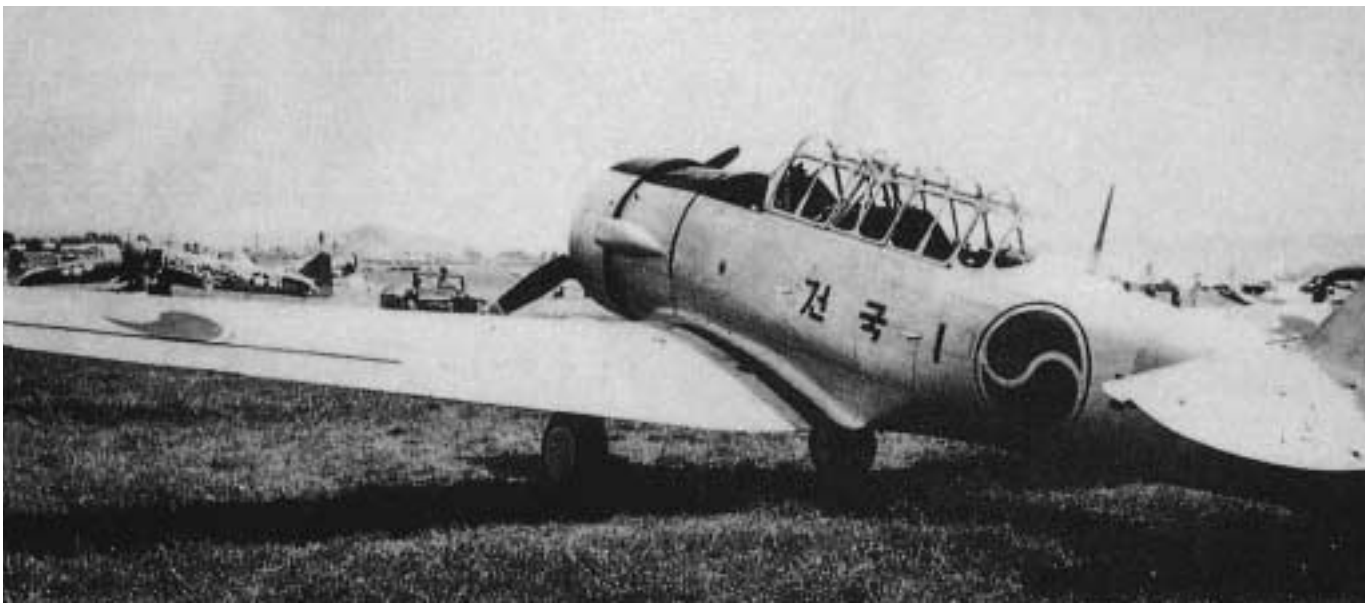
군의 정규 사관 양성 목적으로 1949년 1월 14일 김포기지에서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였다. 공군의 정식 발족과 함께 공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여자항공교육대 제1기생 15명

여자항공교육대는 항공사령부 예하부대로 1949년 2월 15일 김포기지에서 창설되었다.

건국기 명명식

국민이 헌납한 충남1호, 전매1호 등 T-6기 10대의 건국기 명명식이 여의도기지에서 거행되고 있다.(1950.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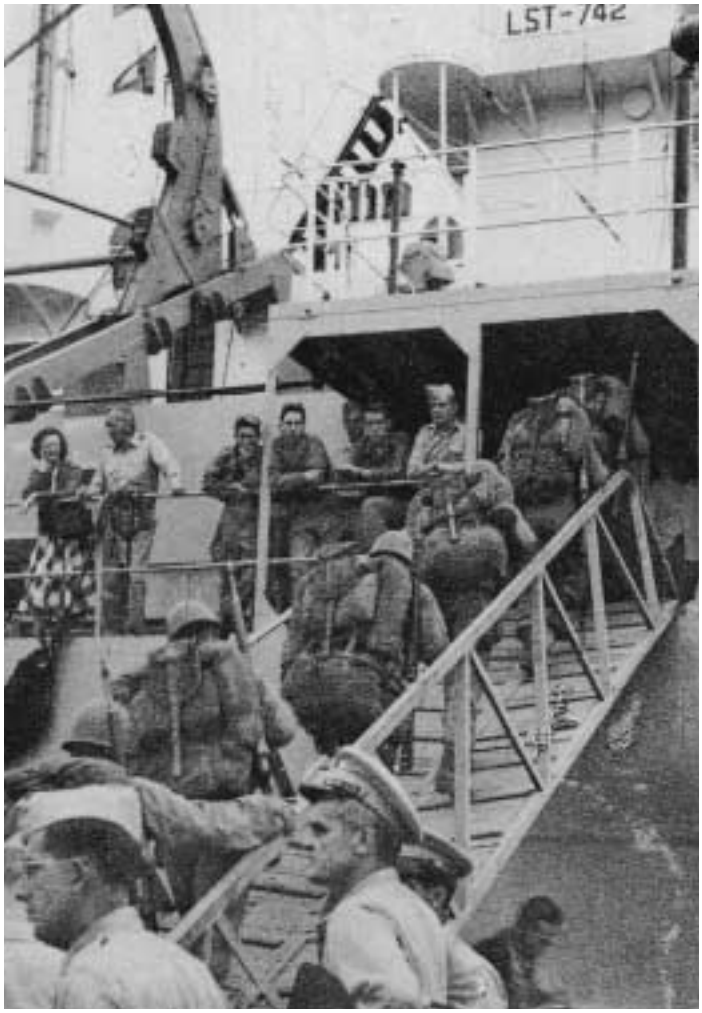
T-6 훈련기(건국기)

건국 초기 1950년 5월 14일, 전 국민의 헌금으로 10대를 캐나다에서 도입한 2인승 훈련기로서 전술정찰, 대지공격 및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62년 12월 1일 퇴역하기까지 588명의 조종사를 양성한 역사적 항공기다.

기갑부대의 장갑차

국군의 시가행진

정부수립을 기념하여 국군 최초로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1948. 8. 15)



철수하는 미군들(1949. 6. 29)

마지막 주한미군들이 인천항을 떠남으로써 남한에서의 철수가 완료되었으며 472명의 군사고문단만이 잔류하였다.

처음으로 실시한 징병제(1949. 12. 16)

첫 징병검사 실시(1949. 12. 16)

국민개병제의 확립과 더불어 첫 징병검사가 실시됐다.